

정신지체아의 정상형제자매에 대한 자아개념과 좌절감에 관한 연구*

정은순**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산업은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었으나 그 부산물인 산업공해는 숙명적인 희생자를 만들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게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있는 이상 그 희생자의 복지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것이므로 심신장애자의 복지는 중요한 사회 문제이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은 형제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이며 가정환경은 가족구성원들의 실패나 성공, 행복이나 불행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다(송, 1989).

가족내 장애아의 존재는 사회심리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원이다. 장애아동의 특별한 요구들은 주위사람들에게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게된다(Hall, 1988).

특히 정신지체아란 지적능력이 평균이하로 2 표준편차 이하에 해당되며 적응행동에 현저히 장애가 있으며 발달기에 정신지체가 나타난 자이다(Blake, 1976 ; 김, 1981). 여기서 적응행동은 사회적 성숙과 행동이상이 포함되는데 사회적 성숙은 아동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능력이며 행동이상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신지체는 사회성숙이 늦고 행동이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서 가족에게 상당한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신지체는 행동특성, 인지과정, 구조적 특성, 중후적 특성, 사회적응 특성에도 정상아와 차이가 심하며

동질 집단내에서도 그 차이가 다양하다.(Reynolds, 1977 ; 이, 1981)

가족중 한사람의 질병이나 장애는 전가족 구성원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되므로 정신지체아가 있는 가정의 형제자매와 정신지체아와의 관련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전체 가족의 이해를 돕는것이 된다(Skrtic의 3인, 1984). 또 가족중 형제자매는 다른 가족구성원보다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고 서로서로 현저하게 감정이 이입된다고 하므로 형제자매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Adams, 1967).

모든 형제자매가 서로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때 가족중의 한사람이 정신지체 또는 만성적 질환이나 장애로 인한 무력감은 건강한 형제자매에게 얼마간의 영향을 줄 것이며, 어린이의 만성건강문제와 그들에 대한 가족의 반응은 복합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McKeever, 1983).

임상의학자들은 만성질환아의 부모와 각 가족구성원을 관찰하여 만성질환과 연관된 사회심리적 연구를 하였다. 위기상태에 있는 장애아의 가족을 보살피고 치료하기 위한 진정한 가족중심 접근은 형제자매가 겪는 경험이 그들의 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Farber, Jenne와 Toigo(1960)에 의하면 정신지체아 형제자매는 자립심을 가지며 사회에 더 잘 적응한다고 한다. 그러나 Burton(1975)에 의하면 정상 형제자매는 종종 장애아에 의해 역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며, Adams(1967)는 장애아와 함께 지내는 상황에서는 아동이 중요한 발달기에서 정서적 거부로 인한 심적 타격

* 본 연구는 한국 학술진흥재단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을 받을 경우 가족관계에 문제가 일어나고, 사회적 접촉을 위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서 정상 형제자매의 인성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 형제자매의 자아개념에 관한 Gath(1972)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아의 성별, 장애 유형은 형제자매의 출생순위와 성별,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고, Hall(1988)은 정신지체아 형제자매의 독립변수가 자아개념 점수에 차이가 없다고 한다. 형제자매는 사회나 가정생활에서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때 좌절이 초래된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이 장애아에 집중되므로 인해서 정상 형제자매에게 다소 소홀하게 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빠른 변화에 대처능력이 부족하면 좌절감을 갖게된다고 한다(Reinert, 1976).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정신지체아는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의 역할긴장 등,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고, 부모와 아동간의 관계는 자아개념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는듯하나 형제자매의 자아개념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다.

그러므로 형제자매의 자아개념은 어떤 다른 하위변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사료되며 표집대상과 문화 전통적 가족체계가 외국과 다른 우리나라에는 정신지체아의 정상 형제자매의 자아개념과 좌절감은 어떤가를 구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는 수 편 있으나 형제자매의 자아개념이나 좌절감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또 간호는 최적의 건강유지와 증진 및 기능회복을 돕는 것으로 가족환경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밝혀진바이나 가족중심 간호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정신지체아가 있는 가정의 정상 형제자매의 자아개념은 어떠한가 좌절감과 자아개념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 가족구조내의 제변인 중 형제들의 위치와 성과 나이에 따라 정상형제자매에게 좌절자극이 주어질때에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가를 조사함으로써 가족융화 및 균형을 유지하고 형제자매들의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임상치료나 교육적 접근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상 형제자매의 자아개념과 정신지체아와 관련된 좌절자극에 대한 형제자매들의 반응을

조사하므로서 정신지체아가 그 형제자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지체아 정상 형제자매들의 자아개념과 제변인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2. 자아개념과 좌절감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파악한다.
3. 부모와 관련된 좌절감을 파악한다.
4. 정신지체 형제자매와 관련된 좌절감을 파악한다.
5. 친구들과 관련된 좌절감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정상 형제자매 : 자신이 특별한 교육적 의학적 또는 정신적 요법을 받고 있지 않으며, 장애아와 혈연관계로서 맺어진 서열로서 나이가 많을때는 형, 혹은 누나, 언니, 나이가 적을때는 동생(아우)라 하고, 통칭하여 형제자매라고 정의한다.

정신지체아 : 발달기에 일어나고(18세 이전) 지적능력이 분명히 평균이하(IQ 70이하)이고 적응행동에 현저히 장애가 있는자로서 판별위원회에서 선정한 평가기준에 맞는 아이들로 정의한다.

자아개념 : 자아평가 또는 판단의 하나로 정의한다. 이것은 Hall이 제작한 어의구별척도(Semantic Defferential Test)를 수정보완하여 측정한다.

좌절감 : 정신지체형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곤란한 상황을 가정하여 자극하였을때 나타내는 자아의 판단 또는 자아평가의 하나로 정의하며 Hall이 제작한 도구인 정상형제자매들의 좌절과 관련된 자아개념 검사 즉 어의구별척도(Semantic Defferential test of siblings self concept related frustration)를 수정보완하여 측정할 것을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4. 연구의 제한점

1. 좌절감을 조사하기 위한 상황이 정신지체아가 있는 경우 경험할 수 있는 좌절자극 상황을 가정하여 만든 도구이기 때문에 정신지체아형제가 없는 일반 아동에게는 적용 할 수가 없어 정신지체아의 정상 형제자매와 일반 아동간에 좌절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할 수 없었다.
2. 좌절감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가정환경에 관련된 변인을 통제 할 수 없었다.

3. 자기보고서에의 조사는 대상자들이 솔직한 반응을 회피하고 규범적으로 지각하는 태도로 반응하려하기 때문에 좋은 면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확률이 높을 수 있다.

4. 대상자들이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형제로 자발적인 참여 또는 부모의 권유에 의해 참여한 아동으로 제한하였으므로 확대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인간행동은 인간 각 개인의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인간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자아개념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자아개념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신지체가 있는 가정의 환경은 가족들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가족구성원들의 자아개념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부모와 자녀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아와 형제사이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정신지체아 형제자매의 자아개념과 관계된 좌절감을 알아보고 정신지체아와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선행연구를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자아개념과 좌절감

인간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자아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우선 자아개념의 정의와 발달에 관한 문헌고찰을 하고,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자의 행동특성을 파악하여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며, 긍정적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이 같은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자아개념의 정의 발달에 관한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자아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 시키는데 상당히 공헌을 한 Rogers(1959)에 따르면, 자아는 지각과 현상의 장에 반응해가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한다. 특히 자아는 인간관계의 과정에 영향받는 바가 크며 “나는” “나를” 등의 개념들이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형성된 개념은 자기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어떠한 가치적 존재로 느껴지는가의 평가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주로 부모와의 애정관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개념이 형성되는데 바로 이것이 자아개념이라는

것이다. 한편 전(1972)는 자아개념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라고 정의하면서 인지적 요소와 평가적 요소로 자아를 분류하였으며 인지적 자아는 인간행동의 종류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개인이 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상통하고, 평가적 자아는 인간 행동의 질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적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파악한다고 분석했다.

자아개념의 발달단계는 유아가 자신을 환경과 구분할 수 있을 때 부터 자기(자아)개념의 발달이 시작되며, 이때부터 유아는 자신의 독특한 신체적 존재를 점차 깨닫게 되고 자신과 타인간의 차이점도 알게 된다. 그리고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아동의 자아개념은 현재에 속한 또는 장차 속하기 원하는 사회적 역할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최와 최, 1989).

또한 자아개념 발전의 과정은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주장과 성인기의 초기에 결정된다는 주장이 있어 이 방면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송(1989)에 의하면 자아개념은 개인이 성장 과정에서 새로운 잠재력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처럼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활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McCrae와 Costa(1982)의 연구는 정상 개인에 있어 자아개념이 초기 성인기에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자아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면, Allport(1961)는 고유자아를 ‘느껴지고 알려진 대로의 나’로 칭하고, 고유자아의 발달단계는 유아기에서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즉 신체적 자아, 자아동일성, 자아존중감, 자아확대, 자아상, 자아형성, 고유적 자아추구 등 7단계를 거쳐 전개되며 어느 한 단계에서의 실패와 좌절은 다음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고유자아의 조화로운 경험은 건강한 성격의 발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다. 특히 세번째 단계인 자아존중감은 자아의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단계로서 만약 부모들이 아동의 탐색적인 욕구를 저지시킨다면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손상을 입힐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굴욕과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는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하다. 한편, Gardner와 Oei(1981)는 자아개념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긍정적인 감정과 중요한 가치감을 갖게하는 대인관계와 문화적 경험, 개인이나 사회가 인정하는 능력소유 및 자아실현 능력, 대처능력, 현실화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자아개념의 이론적 발달과정과 그 정의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적인 특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과 감정 및 의미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현대심리학의 시각에서 보면 자아개념은 대상으로서의 자아(self-as-object)로서 자신에 대한 각 개인의 정적 특성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자아개념이란 나의 속성, 관련된 일들, 나와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비추어 본 나 자신의 평가체제를 의미한다.

신 등(1974)은 자아개념을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으로 구분하고 긍정적 자아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자기를 가치있고 보람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갖고 행동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자아존중감, 자부심이 있으며 성격도 안정되고 바람직한 성격특질을 소유하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뿐 아니라 자기 생활의 장에 알맞게 적극적으로 행동한다고 했다. 최(1981)는 개인의 행동양상은 자신의 자아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자는 자신을 정확히 평가하고 능동적이며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는 적응력이 높은 반면에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자는 자신에 대한 불확실감, 열등감, 정서적 불안정, 낮은 목표설정, 자신감 부족 등으로 적응이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과 유사하게도 Thomas(1973)는 자아개념과 적응과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 낮은 자아개념을 가진 개인은 그들의 삶에 대해 불행할 수 있으며, 정신이상의 느낌까지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간은 언제나 적응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신지체는 적응을 못하고도 욕구불만이나 좌절을 갖지 않는 부류도 있으므로 부적응과 욕구불만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적응은 욕구불만이나 좌절감을 초래한다고 한다(김, 1990).

송(1989)은 한 인간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리고 스스로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때 긍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된다고 한다. 만약 부모, 동료, 친구 등이 그의 행동과 심리적 태도 등에 대해 조롱하고 그를 비판하면 그때 결과적으로 부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 인간은 그가 타인에 의하여 판단되는대로 그 자신을 판단한다고 한다.

따라서 자아가치는 자아에 대한 중요한 느낌이며 개인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아평가의 개념은 어떤 표준으로부터 나오는 자아존중감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아가치가 한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고

내적인 지지에 의존하는 능력의 인식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좀 더 근원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아동은 성장과정에서 지연(delay), 좌절(frustration), 갈등(conflict)을 경험한다. 아동이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처음에는 영상(imagery)을 통하여 긴장을 줄이려고 노력하나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고 현실에서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대상을 찾아야 한다. 좌절이란 쾌락의 추구 및 고통의 회피를 방해하는 어떤 사상(실제적, 상상적)으로 정의된다(Reinert, 1976).

Freud의 추동 이론에는 다음의 두가지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좌절로 인해 공격요구가 유발되면 많은 에너지가 활성화되어 공격대상을 찾게 된다는 가정하에 좌절된 사람은 좌절시킨 바로 그사람에게 보복하든지, 다른 대상에게 공격하든지, 자기파괴적으로 행동하든지, 분노를 충동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에너지를 발산하고자 한다고 하며, 둘째는 공격 에너지를 발산하면 공격성이 감소된다는 가정을 세웠다. 이를 정화가설이라 한다. 좌절감을 느끼게 한 당사자에 대한 직접공격이 공격요구 감소의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대리적 표출도 비교적 효과적인 방법이다. 때때로 욕구좌절이 공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공격을 통해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는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최와 최, 1989).

Dollard등(1939)의 좌절-공격 가설에 따르면 좌절은 가해적이며 파괴적 행동을 하게 하는 공격적 충동을 자동적으로 유발한다. 즉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어떠한 대상에게든 반드시 공격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공격행동은 좌절의 필연적 결과이며, 좌절은 공격행동의 필수적 선행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실험연구결과 욕구좌절이 반드시 공격을 유발한다고는 할수 없다고 한다.

때때로 좌절때문에 공격행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본능적 추동의 반사적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사실상 대부분의 이론에서는 좌절시 아동이 생각하는 사회적 학습경험 및 인지적 반응을 중요시하고 있다(최와 최, 1989).

아동은 환경과의 사이에서 다소 갈등을 경험한다. 그들은 부모, 교사 혹은 동료와 함께 관련되는 문제를 가지며, 그들 자신과 함께 갈등을 하거나 그들 집에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의 희생자가 된다. 아동은 사회생활에서 그들의 욕구가 수용되지 않을때 좌절이 초래된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빠른 변화는 불명확하여 아동들의 좌절을 유도한다. 아동의 욕구가 확장되고 성장을 위한

혼합된 구조의 지침이 제시되면 좌절 이탈상태로서의 대응형태인 미움, 불신, 위축으로 변한다고 한다(Reinert, 1976).

지금까지 살펴본 자아 및 자아개념과 좌절감에 관한 각 이론적 접근은 자아개념과 좌절감이 인간행동에 어떤 역할을 갖게 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아의 역동성을 강조한 정신분석학적 접근이 시사하는 바 대로 자아개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므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곧 높은 자아존중감으로서 가치로운 자기를 발전시켜 나갈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으로 하여금 좌절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부모와 교사는 그들에게 좌절의 원인을 더 깊이 생각하며 정확히 평가하도록 가르쳐야 하며 좌절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성숙되고 친사회적이며 협동적인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최와 최, 1989). 또 유아기에서부터 자신을 가치있는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부모는 자녀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돕는 가족관계는 아동들의 자아개념을 향상시킬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정신지체아와 형제자매

정신지체아 가족을 연구하기 위해 가족을 하나의 체제로 보고 가족상호작용의 역할관련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가족은 여러 하부체제로 구성되어 있고 서로 상호적으로 작용을 하며 가족기능은 가족구성원이 가족상호작용 과정에서 그들의 행위를 어느 정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형제자매의 관계는 긴장되고 복합적이고 다양하다. 부모-자녀와의 관계에 비해 형제자매 관계는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가족의 삶에 기여하는 경향이 많다고 본다. McKeever(1983)에 의하면 형제자매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가족관계의 미세한 부분과 사회적 경제적 경험을 함께 한다. 즉 부모의 시간, 관심사, 사랑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배경과 환경도 같이 한다. 또한 성실성, 교우관계, 경쟁, 사랑, 증오, 질투, 시기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다양한 정도로 나타난다. 모든 형제자매가 서로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한 아동의 정신지체는 정상 형제자매에게 영향을 줄것이다.

정신지체아는 특별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지각되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 정상 형제자매는 이해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 Farber(1970)는 정신

지체아의 출현으로 정상 형제자매는 심한 역할긴장을 경험하나 동년배의 역할기대보다 더 많이 성취한다고 한다. 한편 Galiker(1962)와 여러 학자들은 정신지체아의 가족중에서 보호적인 보살핌을 수행하는 자매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 수록 역할긴장의 수치가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리고 Farber(1970)는 역할긴장으로 정신지체아를 돌보는 기능과 책임은 문화적 및 성역할 기대로 인하여 정신지체아의 동생보다 나이가 더 많은 언니나 누나가 할당된 역할을 더 잘 처리한다고 한다.

다른 한편 Fowle(1968)은 California주 도시에 거주하는 70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족중 가장 나이 많은 형제 자매는 가정에서 정신지체아 동생의 존재로 인해 역반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Miller(1974)는 정상 형제자매끼리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야단법석을 떠는데 비해 정신지체아와는 더 잘 도와주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사실 형제자매들은 정신지체 형제자매를 괴롭히는 것을 죄스럽게 느끼나 때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신지체아가 낙인이나 비난을 극복하도록 가르치는 좋은 훈련장으로서의 구실을 한다.

정신지체아는 가족소모를 증가시킬뿐 아니라 보살핌을 위해 제공되는 시간적 소모는 경제적 생산(수입)을 약화시키고 소모적인 요구를 증가시킨다.

Skrtic 등(1984)은 필연적으로 가족은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문제를 나누어 갖게 됨을 주장한다. 따라서 형제자매들도 이 과업의 어떤 부분이나 전부를 할당받게 된다.

Farber(1970)에 의하면 역할긴장은 나이 또는 상대적 형제자매 위치에 무관하게 가족내 모든 형제자매가 경험하고, 정신지체아는 가족내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의 역할로 가정되고 있다. 이러한 긴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되며, 즉 정신지체아가 나이가 들어 청년, 어른이 되어도 지속적인 보살핌이 요구되어진다. 다시 말해 형제자매가 부모대리로서 더 요구될 지도 모른다. Miller(1974)는 장애아가 나이가 들고 성장함에 따라 그들의 형제자매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정신지체아가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형제자매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성장함에 따라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정신지체아의 보살핌에 대한 잠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Hall, 1988). 청년에서 초기 성인이 됨에 따라 역할긴장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장애 형제로 인한 어려운 재정적 문제 또는 후견인

이 대한 문제가 더 부과된다. 어떤 가족에서는 성인이든, 정신지체 형제나 자매의 보살핌에 대한 책임이 젊은 시대로 옮겨진다. 형제자매 관계에서 부모대리의 관계로의 이동은 심한 긴장과 불안을 나타내게 될지도 모른다(Grossman, 1972).

정상 형제자매들은 정신지체아의 건강간호, 건강유기, 안전과 보호, 운동성과 같은 기능을 포함한 신체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된다. 그들은 집안의 가질구레한 일에서부터 서로 돕고, 각자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경제적 지원을 하고, 그밖의 여러가지 일을 한다. 또 친구가 부족한 정신지체아의 놀이친구가 되고 교양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기도 한다(Skrtic의 3인, 1984). 정상 형제자매가 정신지체아에게 인지적인 과제를 성공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행위의 일반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사연구가 있다. Bank 와 Kahn(1975)은 지도기능을 제공하는데 있어 정상형제자매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형제자매는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고, 비판하고, 격려하고, 인정되는 새로운 매체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또한 중증 정신지체아는 그의 정상 형제 자매에게 긍정적 부정적 방법으로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Simeonsson과 McHale's의 연구에 의하면 장애아의 형제들은 그들의 연령이상으로 성숙도와 책임성있는 태도에 잘 적응되어 있다고 한다. 정상 형제자매는 차이점을 잘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 참을성이 있고, 정신지체아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도움이 되는것 같다고 한다(Skrtic의 3인, 1984). 또한 Farber(1970)의 연구에서 정신지체아의 형제자매는 고도의 능력과 자립성으로 더 잘 사회에 적응하게 되고 역할긴장도 덜 경험하게 된다고 지적했으며, Seligman(1983)은 정신지체아 형제자매는 그들 정신지체아를 향해 지극한 간호와 온화함으로 반응하며 때때로 그들 장애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을 추구함으로써 그들 경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리고 Wilson, Blacher and Baker등(1989)은 중증 장애아 형제를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통한 조사에서 정신지체아의 정상 형제자매들은 정신지체아의 복지에 대한 책임감, 부모를 도와야 하는 책임감이 아주 높게 인식되어 졌고 또 모든 형제자매가 정신지체아와 사이좋게 잘 지낸다는 응답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반해 Grossman(1972)은 장애의 정도가 덜 한 즉 경증의 정신지체, 정서장애, 학습곤란아 등에서는 과

정과 결과를 명확하게 예측하지 못해 더 부정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체적으로 외관상 명백한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아들은 그들의 가족에게 명백한 요구를 나타내어 다른 가족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모호성을 제거해 준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는 심한 정신지체아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의 형제자매보다 농아의 형제자매에서 정상 형제자매의 분노의 빈도가 더 증가한다는 Barsch(1961)의 연구보고에 의해 확인되었다.

Cleveland와 Miller(1977)는 정신지체아의 성인 형제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대부분이 정신지체아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보고를 했다. 그러나 Caldwell 과 Guze(1960), McKeever(1983)는 많은 형제자매들은 정신지체아에 대한 어떤 정보를 받지 않고 그들 형제자매의 장애유형, 그것의 원인, 치료, 장애의 자립을 위한 요구조건과 의미에 관해 정보를 제공받지도 않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Hall(1988)에 의하면 형제자매에게 정신지체아에 관한 이해나 정보 부족으로 생기는 두가지 명백한 현상이 있다. 그들은 상황이 실제 있는 것보다 더 무섭고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래서 상당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또 그들은 정신지체아에 대한 약간의 부끄러움이 있어 친구를 집에 데러오지 않는다고 한다. Cleveland와 Miller(1977)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정상 남자형제가 훗날 자신의 자녀가 정신지체로 태어날 가능성에 대해 불안을 나타냈다고 한다. Trevino(1979)는 유전인자와 정신지체아 형제의 갈등이 관련이 있다고 한다. 정신지체아 형제자매는 가족구성원으로 인한 동일시의 영향을 두려워하게 되며 Gath(1974)는 몽고리즘의 자매에게서 이런 현상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았다. 정신지체 형제들과의 동일시를 두려워하는 경우는 동성일때가 이성일 경우 보다 더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끼게 되며 정신지체 형제가 자신들보다 더 나이가 많은 경우에 적응이 더 힘들다고 한다.

Farber(1970)의 주장에 의하면 정신지체아에 대해 가지는 형제자매들의 동일시의 감정과 그들 문제를 더 잘 이해하려는 바램은 가끔 정상형제 자매들이 교육과 인간봉사의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들의 생을 희생해서라도 사회와 인류에 공헌하는 것을 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한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볼 때 가족내 정신지체아의 존재는 가족의 역동성과 기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침이 드

러났다. 또 형제자매들은 정신지체 형제자매의 정신지체 정도와 부모의 반응, 지역사회, 동료들의 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있음도 나타났다.

3. 형제자매간의 상호작용

가정내에서 형제자매간의 상호작용은 성, 연령과 출생순위나 서열에 따라 달리 나타나며 특히 정신지체가 있는 가정에서는 정신지체를 중심으로 형 또는 동생의 관계에서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Bowen(1978)은 출생순위가 각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가족내에서 더 연령이 많은 형제자매는 아이를 돌보고 가정일을 돕도록 기대되어진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역할이 부모대리와 형제자매 두가지의 역할로 확대되는 것이다. 사회의 구조적 전망으로부터 이 역할은 형제자매가 부모와 그의 나이 어린 정신지체아의 여러가지 욕구를 조정해 주기를 요구한다.

Hall(1988)에 의하면 결국 이 역할을 하는 많은 정상 형제자매들은 자신의 요구보다 정신지체아를 돌보는 역할이 선행한다고 한다. Farber(1970)는 대리 부모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은 정신지체 형제자매와 부모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가족 밖의 활동은 어느 정도까지는 철회하도록 강요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나이 어린 정신지체아의 경우 형과 누나는 부모를 돕는 일과 같은 증가된 역할 요구가 종종 있다. Stoneman 등(1987)이 정신지체아의 순위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역할을 관찰 연구한 결과 가르치는 일, 돕는 일 등의 과중한 역할불균형을 나타내며 성별간에 차가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나이가 어린 정신지체아가 있는 가족은 부모가 해야 할 일을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부과하여 역할 부담이 증가한다고 하고, Skrtic 등(1984)에 의하면 순위 형제자매는 등교길에 정신지체아우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자매가 부모의 노여움으로부터 정신지체 형제를 감싸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Farber(1970)에 의하면 부모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 부담은 역할진장을 증가시키고 장애아보다 더 나이 많은 형제자매의 역할기대는 나이가 더 어린 정상형제자매를 가진 또래들의 역할기대보다 더 높다고 한다. 그러나 Clelland와 Miller(1977)는 나이가 위인 자매는 성역할에 밀착된 부모대리의 책임에 대해 분노를 경험한다고 한다.

Hall(1988)이 정신지체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역시 더 나이가 많은 형제자매들은 동생들보다 정신지체아에 대해 더 잘 정보를 제공한다고 한다. 그들은 정신지체에 대해 더 잘 알고, 장애아를 더 잘 수용하게 될거라고 그들의 가족은 믿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면담결과 나이가 많은 형제자매가 동생들보다 경험에 더 잘 대응한다고 판단되었다고 한다.

Gath(1974)는 몽고리즘 아동의 형제들의 반응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장애아보다 나이가 위인 자매가 부정적 영향을 받는데 비해 장애아보다 어린 형제들은 장애아로 인한 나쁜 영향은 없었다고 한다. 정신지체아보다 나이가 어린 정상자녀를 둔 부모는 정신지체아에 대한 것을 정상자녀를 통해 보상하려는 욕구가 있을 수도 있다. 또 Fotheringham과 Creal(1974)은 정신지체아의 동생의 경우 정신지체보다 능력이 앞서 간다든가 자신이 훨씬 어린 데도 형을 보살펴야 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데서 일찍 어른스러워 지는 것 같다. 그리고 그가 성숙함에 따라 부모는 더 빨리 성숙한 행동을 기대하고 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Farber(1970)는 나이 더 어린 동생이 사회적 문화와 기술 면에서 그의 장애 형제자매보다 능가하게 되고 영향면에서 그는 가족의 계급의 위치를 교환하고, 더 나이 어린 동생도 점점 어른스러운 아이로 되어간다고 했다.

다른 한편 Adams(1967)는 형이 정신지체인 경우 나이가 더 어린 동생은 정신지체아의 행동을 본받을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다. 즉 증가된 부모의 주목, 관심, 돌봄의 자극은 더 나이가 어린동생이 지체 형제자매의 행동을 적용하거나 모방하려는 가능성을 조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방된 행동에 대한 부모의 불안은 강력한 강화자로서 나타날 수 있다고 Adams는 지적하고 있다.

정신지체아가 정상 형제자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Grossman(1972)의 초기 조사 연구중에 나이가 더 어린 동생이 나이가 더 많은 장애 형제자매를 동일화하는 임상적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동일화 과정은 정신지체아보다 나이 어린 동생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나이가 어린 동생이 정신지체인 형을 모방하고, 그에 대한 주목, 상호작용은 정신지체아를 하나의 인간으로 더 동일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들은 정신지체아의 언어형태, 자세, 행동을 모방한다. 연구자들은 나이가 더 어린 아이들은 더 나이가 많은 형제자매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 같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모의 행동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의 잠재력을 관찰했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장애형제자매의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내에서 나이가 더 어린 아이들은 초기 형제자매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다른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구에 더 맞추려고 한다. 그러나 Hall(1988)에 의하면 정상 동생은 정신지체 형의 지체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게 되고 부모는 정신지체아의 성장지연을 부정하고 합리화하거나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결국에는 나이가 더 어린 동생의 욕구는 거절당하고 무시당함으로써 그의 발달과정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

자매의 역할은 정신지체가 있는 가정에서 가정일과 돌봄의 의무가 확대된다. 이러한 역할부담은 자매가 어머니에 대한 갈등이 증가되고 친구들과 적절한 활동을 할 기회가 적어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Gath(1974)는 부모와 교사들에 의해 완성된 행동질문지에서 몽고리즘 아동의 자매는 정상 남형제들 보다 행동이 더 빛나간 것 같다고 한다. 몽고리즘 아동의 국민학교 나이의 자매 중 11명이 이탈행동 점수가 높았고, 중등학교 나이의 자매중 24명이 이탈행동 점수가 높았다. 이 결과로 예측할 수 있는 설명은 일반 가정의 자매보다 정신지체가 있는 가정의 자매는 가정적 책임이 더 부과되었고 이러한 영향은 부모의 과잉부담에 의해 전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Farber(1970)에 따르면 가정에서 함께 기거하고 있는 정신지체아의 남형제는 보통 가정의 남형제보다 더 자유로움이 허용되었으며, 이 자유로움의 이유는 엄마가 정신지체아의 돌봄에 매여 있어서 정상 남형제에게 엄격한 통제를 발휘할 수 없고 충분한 관심을 들 수 없기 때문에 기인할 수 있다.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정신지체아로 인해 형제자매들은 그들의 연령과 형제위치에 따라 역할에 변화가 있으며 따라서 의식에도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가족구조내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형제와 자매관계는 더욱 중요한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남아 선호사상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어 권위와 경제적 책임을 남아에게 부여하며 가사일은 남아보다는 여아가 담당해야 한다고 하므로 정신지체아가 있는 형제자매의 역할 부담은 그 의식 구조에 따라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정신지체아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정신지체아의 정상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하였다.

부산 지역 H학교, 대구지역의 B와 N 학교 공주지역의 J학교에 협조요청하여 초등부와 중등부과정의 학부모의 양해에 의하여 형제자매중 본 연구에 참여할 뜻이 있는 가정에 설문조사서를 발송하여 회수된 것을 사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중 기록상의 누락과 성실한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을 제외한 가용설문지는 부산지역 64부, 대구지역 55부, 공주지역 12부 합계 130부였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정신지체아는 정신지체아로 진단받고 특수학교에서 일련의 교육과정을 받는 자로서 가정에서 함께 기거하는 형제중 단 1명이 정신지체인자로 한정하였으며, 정신지체아동은 교육가능급이 67명 훈련가능급이 63명이었다. 응답자인 정상 형제자매는 정신지체아와 함께 기거하는 만 10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으로서 설문을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자로 하였다.

2. 측정도구

1) 자아개념검사

Hall이 고안한 어의구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Test)를 번안하여 응답자의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평점치간의 차(D점수)를 구하여 불일치 정도를 본다. 응답자는 주어진 개념을 일련의 5점 이극평점 척도에 따라 평가한다.

척도는 좋다-나쁘다, 강하다-약하다 등과 같은 양극의 8개의 형용사로 이루어졌다. 점수는 8점에서 40점까지 나타날 수 있으나 D점수에 의한 평점차는 0점부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D점수는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 자아개념을 나타내고 D점수가 높으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나타낸다. 자아개념 척도의 내용 신뢰도를 보기 위해 Cronbach Alpha값을 구한 결과 현실적 자아는 .78이고 이상적 자아는 .89로 나타났다.

2) 좌절감

Hall이 어의구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Test)에 의해 고안된 좌절 자극문항들은 정신지체아로 인해 경험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좌절 상황을 제시하고 만일에 이런 상황에 직면할때의 응답자의 반응을 측정하도록 만들어진 것을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주어진 개념을 일련의 5점 이극평점 척도에 따라

평가한다.

자아개념과 같은 양극의 8개의 형용사에 자신의 생각을 표시하도록 고안되었다.

점수는 8점에서 40점까지 나타날수 있으나 좌절자극 반응점수와 현실적 자아점수와와의 차(D 점수)에 의한 평점차는 0점부터 다양하게 나타날수 있으며, D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좌절감이 높다)인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내용타당도를 조사하기위해 1명의 심리학교수와 2명의 교육학교수에게 질문을 구하여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아동들이 이해할수 있는 말로 전달되었는지, 문항 내용이 정신지체 형제에게 적합한것인지, 정신지체가 있는 형제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인지,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을 받아 예비조사를 거쳐 문항의 타당도를 높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각문항 별로 조사한 결과 6개 문항에서 Cronbach Alpha값이 제일 낮은것이 .89이고 가장 높은 것은 .91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991년 12월 10일에 실제 자료수집에 들어가기 전에 기관을 탐사하였고 기관장을 만나 협조를 얻은 후 정신지체아의 형제자매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예비조사에 사용된 표본도 본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먼저 1992년 2월 10일-22일 사이에 특수학교 재학생의 학부모에게 전화 및 협조서신을 보내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가정을 확인하였다. 본 조사는 3월 9일~28일 사이에 참여대상 형제자매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자신들의 부모에 의해 자원한 어린이와 참여여 동의한 어린이에게 그들의 정신지체 형제나 자매를 가진 어린이의 기분과 생각, 자아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안된 조사서에 기록하게 하였다. 학급담임 또는 연구자가 전화로 설문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아동에게 자신들의 반응(응답)이 누설되지 않을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다. 기록상의 시간과 가외변인을 통제할 수 없었다.

4. 통계처리

수집된 자료를 SPSS /PC+(Verson 3.0)으로 분석하였다.

자아개념점수는 D점수로 산출하고 각 변인간의 관계는 일원변량분석(Anova)으로 처리하였다. 자아개념과

좌절자극에 대한 반응간의 상관관을 보기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다. 좌절자극 상황에 대한 반응과 제변인간의 관계를 보기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으로 처리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가정에 정신지체아와 함께 기거하는 형제 자매들의 자아개념을 조사하고 제 변인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정신지체아 형제로 인해 경험되어질 수 있는 여러가지 좌절경험이 정상형제 자매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좌절감이 있을때의 반응이 제 변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1. 정상형제 자매의 자아개념

정신지체아의 정상형제 자매들의 자아개념은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간의 차를 구하여 그 값을 자아개념 점수로 하고 불일치 점수의 차가 클때는 부정적으로, 차가 적을때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여 제변인중 성별, 나이, 출생순위, 종교, 정신지체아동 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본것은 표 1과 같다.

먼저 정상 형제자매의 자아개념과 성별과의 관계에서 형제 64명(49.2%)의 자아개념 평균점수는 3.39로 낮고, 자매 66명(50.8%)의 자아개념 평균점수는 5.27로 높으며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F=5.27, P<.05$)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형제가 자매보다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며 자매는 형제에 비해 자아개념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나이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에서는 10~11세군이 20명(15.4%)에서 평균평점 3.32점으로 가장 낮고, 12~14세군이 48명(36.9%)에서 평균평점 4.21점으로 다음이고, 15~17세군이 62명(47.7%)에서 평균평점이 4.69점으로 가장 높아 나이가 많을수록 자아개념 평균평점이 높아지는 경향이었으나 세집단간에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P>.05$)

출생순위와 자아개념간에는 형이 70명(53.8%)이었고, 동생이 60명(46.2%)으로 자아개념 평균평점이 각각 4.30, 4.32로 비슷하며 두집단간에 유의한 차가 없었다. ($P>.05$)

종교와 자아개념간에 종교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80명(61.5%)으로 평균평점이 4.18점이고, 종교가 없다고 답한 아동은 50명(38.5%)로 평균평점 4.62점으로

로 두집단간에 유의한 차가 없었다. ($P > .05$)

정신지체아동의 지체정도에 따라 분류했을때 교육가능급에 해당되는 아동과 함께 기거하는 자는 67명(51.5%)로 4.55점이고, 훈련가능급 아동과 함께 기거하는 자는 63명(48.5%)로 4.16점이며 두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5$)

2. 자아개념과 좌절감과의 관계

자아개념은 이상적 자아평가와 현실적 자아평가의 차에 의해 자아개념 점수(D점수)를 산출하고 각 좌절 자극의 문항에 의한 반응과 현실적 자아의 반응점수의 차를 좌절감의 점수로 하여 자아개념과 좌절감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나타낸 것은 <표2>와 같다.

<표 1> 정상형제자매의 자아개념과 제변인과의 관계
N(%) = 130(100)

변 인		N(%)	Mean	F
성 별	남	64(49.2)	3.39	5.269*
	녀	66(50.8)	5.27	
나이 (만세)	10~11	20(15.4)	3.32	.625
	12~14	48(36.9)	4.21	
	15~17	62(47.7)	4.69	
출생순위	형	70(53.8)	4.30	.001
	동생	60(46.2)	4.32	
종교	있다	80(61.5)	4.18	.268
	없다	50(38.5)	4.62	
정신지체 아 동	교육가능	67(51.5)	4.55	.206
	훈련가능	63(48.5)	4.16	

$P < .05$

<표 2> 자아개념과 좌절감간의 상관관계

좌 절 감	자 아 개 념 r
부모와 관련된 좌절 자극 반응	
문항 1 (3)	.358
문항 2 (4)	.006
형제자매와 관련된 좌절 자극 반응	
문항 1 (1)	-.008
문항 2 (6)	-.046
친구와 관련된 좌절 자극 반응	
문항 1 (2)	.022
문항 2 (5)	.102

* ()속의 문항번호는 부록의 검사도구 문항번호를 나타냄.

자아개념 점수와 좌절감에 대한 점수를 Pearson의 상관으로 분석하여 본 결과 부모와 관련된 좌절자극반응의 문항1에서 약간 높게(.358) 나타났으나 그의 문항은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두개념간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개념과 좌절감은 각각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3. 좌절감에 대한 반응

정신지체아로 인한 좌절감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정신지체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좌절경험과 유사한 상황을 제시하였다. 부모와 관련된 좌절 자극 문항 2개, 정신지체아와 형제자매(본인)와 관련된 좌절자극 문항 2개, 친구와 관련된 좌절문항 2개를 무작위로 제시하였을때 응답자의 반응이 어의구별척도에 의해 측정된 좌절감 정도와 제변인과 어떤 관계가 있나를 분석한 것은 표 3, 4, 5와 같다.

1) 부모와 관련된 좌절감

부모와 관련된 좌절 상황은 다음과 같다.

<문항1> 너의 정신지체아 형제(자매)가 분노발작중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지체아 형제(자매)를 보살피느라 어머니가 너의 숙제를 보살피주는 것을 잊었다고 상상해보라. 너는 다음날 아침 어머니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어머니가 너를 무시한 행동에 대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일때 너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항2> 네가 아빠와 공놀이를 하기를 원하는데 아빠가 정신지체아 형제(자매)도 함께 하자고 말했다고 상상해보라. 너는 정신지체아 형제(자매)가 잡기 힘든 공을 던질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아빠와 혼자만이 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일때 너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의 두가지 상황에 대한 응답자가 나타낸 생각을 좌절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보고 좌절자극에 대한 반응을 제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성별에서 문항1은 좌절감의 평균평점이 남자가 9.83점이고 여자가 11.32점으로 여자가 다소 높은 경향

이었다. 문항2는 남자가 10.98점이고 여자가 12.02점으로 여자가 다소 높은 경향이었으나 문항 1, 2에서 모두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P>.05)

나이별로 볼때 좌절감의 평균평점은 문항1에서 15~17세군이 9.79점으로 가장 낮고 다음이 10~11세군으로 11.21점, 12~14 세군은 11.52점으로 다소 높았다.

문항2에서는 15~17세군이 10.94점으로 조금 낮고, 12~14세군이 11.17점, 10~11세군이 13.37점으로 높아서 나이가 적을수록 좌절감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문항 1, 2에서 모두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가 없었다.(P>.05)

출생순위는 문항1에서 형의 경우 10.73점이고, 동생의 경우 10.54점으로 비슷하며, 문항 2에서 형의 경우 12.06점으로 다소 높고, 동생의 경우 11.02점으로 조금 낮으나, 문항 1, 2에서 모두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가 없었다.(P>.05)

종교는 믿고 있다고 답한 자가 문항1에서 11.06점, 문항 2에서 12.00점으로 다소 높고 종교가 없다고 답한 자가 문항 1에서 9.82점, 문항 2에서 10.72으로 낮았고, 문항간,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차가 없었다.(P>.05)

정신지체아동과 좌절감은 문항1에서 교육가능급 정신지체아의 경우 11.27점보다 훈련가능급에서 9.86점으로 다소 낮고 문항2에서 교육가능급이 12.15점으로 다소 높고, 훈련가능급은 10.79로 다소 낮았으며, 두 집단간 문항간에 유의한 차가 없었다.(P>.05)

〈표 3〉부모와 관련된 좌절감과 제 변인과의 관계

변인	부모문항	문항1		문항2	
		Mean	F	Mean	F
성별	남	9.83	.988	10.98	.478
	녀	11.32		12.02	
나이	10~11	11.21	.599	13.37	.605
	12~14	11.52		11.17	
	15~17	9.79		10.94	
출생순위	형	10.73	.015	12.06	.481
	동생	10.54		11.02	
종교	있다	11.06	.649	12.00	.700
	없다	9.82		10.72	
정신지체교육가능 아	동훈련가능	11.27	.831	12.15	.775
	동훈련가능	9.86		10.79	

2) 형제자매와 관련된 좌절감

정상형제자매가 정신지체아로 인한 좌절상황으로 자극을 받을때의 반응에 대한 좌절감이 제변인과의 어떤 관계가 있나를 알아본것은 표 4와 같다.

〈표 4〉형제자매와 관련된 좌절감과 제변인과의 관계

변인	형제문항	문항 1		문항 2	
		Mean	F	Mean	F
성별	남	9.63	3.058**	10.47	.001
	녀	12.39		10.52	
나이	10~11	11.58	.027	13.05	.926
	12~14	11.08		10.02	
	15~17	11.03		10.24	
출생순위	형	11.24	.023	10.71	.040
	동생	11.00		10.41	
종교	있다	11.50	.551	10.59	.025
	없다	10.28		10.34	
정신지체교육가능 아	동훈련가능	11.08	.049	11.40	1.651
	동훈련가능	10.71		9.41	

** P<.01

형제자매와 관련된 좌절상황은 다음과 같다.

〈문항 1〉 너의 정신지체아 형제(자매)가 점심시간에 학교에 찾아와 너의 옆에 앉기를 원한다고 상상해보라. 너의 옆친구들이 조롱할까봐 너는 “싫어”라고 얘기할 것이다. 너는 너의 정신지체아 형제(자매)를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서 조롱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너의 정신지체아(형제)자매는 왜 너의 책상에 갈 수 없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일때 너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항2〉 너의 정신지체아 형제(자매)가 숙제를 도와달라고 너에게 요청한다면 몇 분뒤에 너는 그만두게 된다. 왜냐하면 네가 열심히 가르칠려고 노력했으나 반복해서 틀리기 때문이다. 네 정신지체아 형제(자매)는 숙제를 잘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너를 원망하게 된다. 이런 상황일때 너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먼저 성별에서 문항1은 남자인 경우 9.63점으로 낮고 여자인 경우 12.39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F=3.05, P<.01$)가 나타났다. 문항 2는 남자인 경우 10.47점, 여자인 경우 10.52점으로 두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

나이와 출생순위, 종교, 정신지체아의 지체정도와 좌절감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

3) 친구와 관련된 좌절감

친구와 관련된 좌절상황을 제시하고 그 반응을 조사하여 제변인과의 관계를 조사한것은 표 5와 같다.

다음은 친구와 관련된있는 좌절상황이다.

<문항 1> 너보다 나이가 많은 상급생이 너에게 너의 정신지체아 형제(자매)가 이상하다라고 말했다고 상상해보라. 그러면 너의 형제(자매)가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너는 사람들이 너 자신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일때 너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항 2> 네가 정신지체아 형제(자매)를 데리고 공원에 놀러왔다고 상상해보라. 만약 다른 아이들이 정신지체아 형제(자매)를 괴롭힌다면 너는 그들과 싸우는 것이 싫어서 정신지체아 형제를 내버려두고 혼자 집에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일때 너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표 5> 친구와 관련된 좌절감과 제변인과의 관계

변인	친구문항	문항 1		문항 2	
		Mean	F	Mean	F
성별	남	9.03	3.776*	15.63	.107
	녀	12.23		15.12	
나이	10~11	12.16	.244	16.95	.345
	12~14	10.63		15.00	
	15~17	10.45		15.31	
출생순위	형	9.84	1.479	15.61	.064
	동생	11.86		15.22	
종교	있다	12.16	5.454*	15.68	.252
	없다	8.24		14.88	
정신지체교육가능	아	11.40	.781	16.16	1.175
	동훈련가능	9.89		14.44	

* $P<.05$

먼저 성별에서 문항 1은 좌절감에 대한 반응점수가 남자 9.03점으로 여자 12.23보다 낮고, 두집단간에는 유의한 차($F=3.77, P<.05$)가 나타났다. 문항 2에서는 남자가 15.63점으로 여자 15.12점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두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 그러나 문항 1보다 문항 2에서 D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나이와 출생순위 간에는 문항 1과 2에서 좌절감 점수가 거의 비슷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

종교에서는 문항 1에서 좌절감이 종교가 있는자가 12.16점으로 안 믿는 자 8.24점보다 높았고, 두집단간에 유의한 차($F=5.45, P<.05$)가 있었다. 그러나 문항 2에서는 믿는자가 15.68점, 안 믿는자가 14.88점으로 비슷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

정신지체 아들의 지체 정도에서는 문항 1에서 좌절감이 교육가능급에서 11.40점으로 훈련가능급 9.89점보다 높았으나 유의한 차는 없었다. 문항 2에서도 교육가능급에서 16.16점으로 훈련가능급 14.44점보다 높으나 두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

V. 논 의

가정에서 정신지체아와 함께 기거하는 정상형제 자매들의 자아개념과 정신지체아로 인해 경험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좌절상황을 제시하였을때 나타나는 반응을 조사하여 정상형제 자매와 관련된되는 제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정상 형제자매의 자아개념

자아개념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평가를 말하므로 형제자매들이 자기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자아개념을 평가하고자 한다.

정상형제 자매의 자아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어의구별 척도법을 사용하였고, 자기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표시하게 하고(현실적 자아) 다음에 자신이 남에게 어떻게 좋게 보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상적 자아)을 표시하게 하므로서 이상적자아와 현실적자아의 불일치점수(D 점수)를 산출하여 이것을 자아개념 점수로 하였다. 정상 형제자매의 자아개념이 형제자매와 관련있는 제변인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성별, 나이, 출생순위, 종교, 정신지체아의 지체정도에 따라 변량분석을 한 결과 응답자의 성별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5.269, P<.05$) 이것은 여자가 5.27점으로 남

자 3.39점보다 자아개념의 불일치 점수가 높게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Hall(1988)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이다. Mckeever(1983)는 부정적 자아상과 높은 불안수준은 장애아의 형제자매 사이에서 나타난다고 하며 Trevino(1979)는 특히 장애아의 자매가 갈등과 stress를 더 많이 느낀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그리고 Gath(1974)는 부모와 교사들에 의해 완성된 행동질문지에서 몽고리즘 아동의 자매는 정상남형제들 보다 행동이 더 빛나간 것 같다고 한다. 몽고리즘 아동의 국민학교 나이의 자매 중 11명이 이탈행동 점수가 높았고, 중등학교 나이의 자매 중 24명이 이탈행동 점수가 높았다. 이 결과로 예측할 수 있는 설명은 일반 가정의 자매보다 정신지체가 있는 가정의 자매는 가정적 책임이 더 부과되었고 이러한 영향은 부모의 과잉부담에 의해 전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Fowle(1968)도 장애아동을 돌보는 나이 많은 여형제가 역할긴장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조정과 간호를 위한 책임감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정(1992)은 정신지체아의 정상 형제자매의 자아존중감이 일반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떤 차이가 있나를 조사한 결과에서 정신지체아동의 정상 형제자매는 일반아동의 형제자매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며 이는 정신지체아동보다 자신의 우월감을 인지하고 부모와 주위의 기대와 격려가 정상형제 자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긍정적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2. 자아개념과 좌절감과의 관계

Breslau, Weitzman과 Messenger(1981)은 정신지체아의 정상 형제자매는 정서적 장애특점은 높지 않음지라도 정서적 문제, 다툼, 비행 등에 관련된 문항에서 상당히 높은 득점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Gath(1972)는 장애아동과 함께 기거한다는 것이 가족에게 문제가 되는 것을 분명하지만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분명한 진술은 할 수 없다고 하며 Tritt와 Essess(1988)는 만성질환아의 형제 27명을 행동과 정서적 적응과의 연구에서 자아개념은 차가 없으나 행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나 자아개념과 좌절감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어 서로의 작용에 대한 설명은 할 수 없다.

본 연구의 성격에서 자아개념 점수와 좌절자극에 대한 반응 점수간에는 부모, 형제, 친구간에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개념과 좌절감은 각각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3. 좌절감에 대한 반응

Bank와 Kahn(1975)은 형제자매의 기능과 반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장애아의 형제자매는 동일시와 분화, 상호조절, 돕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양친의 관계를 조종하는 능력으로 가족간의 균형을 유지시키고 형제간의 동맹, 정보자의 역할, 성인 사회의 중재역할, 미지의 삶에 대한 개척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한편 장애형제로 부터 도망과 회피의 반응, 부모와 결합하여 교묘하게 장애형제를 괴롭히므로서 희생양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같은 형제자매들의 대다수는 희생양이 된 장애아를 친절하게 지지하고 옹호하여 주고 가족들간의 중재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Bank와 Kahn, 1975).

그러므로 정신지체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좌절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신지체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되는 여러가지 곤란한 문제를 부모와 관련된 것 두 문항, 형제자매(본인)과 관련된 것 두 문항, 친구와 관련된 것 두 문항을 정상형제 자매에게 제시하고, 그들이 나타낸 좌절자극에 대한 반응(D점수)에 의해 나타내는 좌절감을 형제자매의 제 변인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모와 관련된 좌절감

문항 1은 부모의 관심이 정신지체아에게 집중되므로 인해 정상형제자매의 의존적 욕구(숙제 지원)가 무시되는 경우를 상상하는 좌절 자극 항목이다.

문항 2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독점욕이 무시되는 상황에서 질투심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상상하는 좌절 자극 항목이다.

본 연구의 성적에서 부모와 관련된 좌절문항은 1과 2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Hall(1988)의 연구에서는 문항1과 같은 상황에서 D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고 하며 부모와 관련된 좌절자극에 대한 형제자매의 좌절감은 형제위치에서 유의하게 높았다고 한 것과는 다소 다른 견해가 있다.

Colletti와 Harris(1977)는 장애아의 부모는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충분한 시간이나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정신지체아에게 부과된 정서적 돌봄에 대한 긴

장애문이라고 진술했다. 이러한 부모의 무시는 형제자매가 분노, 화, 거절, 시기심의 감정을 경험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Farber와 Ryckman(1965)는 정신지체아의 형제들은 정신지체아의 의존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더욱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며, Fotheringham과 Creal(1974)이 장애아 보다 나이 어린 형제자매가 부모 박탈감이나 의존적 욕구에 대한 좌절감을 더 크게 경험한다고 하고 Adams(1967)는 나이 어린 형제 자매는 장애형제로 인해 부모의 관심을 잃어버리는것에 민감하나 나이 많은 형제자매는 의존적 욕구가 별로 없었고 좌절감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본 연구의 결과 형제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응답자의 나이 분포가 어린층(11세 이하)이 15%이고 중,고등학생이 더 많으므로 의존적 욕구에 대한 좌절감이 낮은것에 기인한것으로 사료된다.

2) 형제자매와 관련된 좌절감

문항1은 정신지체아로 인한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상상하는 문항이고 문항2는 정신지체아에게 도움이 요구되는 경우에 좌절경험을 상상하는 문항이다.

본 연구의 결과 문항1에서 성별간에 유의한 차($F=3.06, P<.01$)가 있었으나 그외의 제 특성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문항2에서도 제 특성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Hall(1988)의 연구에서 문항1과 같은 상황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장애 형제자매에 대해 더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으나 그들의 특성에 따른 좌절자극에 대한 반응은 문항1과 문항2의 경우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연구보고에서 Trevino(1979)는 장애아의 누이에게서 갈등에 의한 정서적 영향을 많이 받는것으로 나타났으며, Stomemen 등(1987)은 정신지체아와 정상형제자매간의 상호작용에서 성별에 따라 역할차이가 있었다고 하고, Farber와 Ryckman(1965)의 연구에서도 정신지체아와 자주 상호관계를 갖는 정상자매는 정신지체아가 없는 가정의 자매보다 역할긴장을 더 많이 갖는다고 한다. 또한 Gath(1974)는 몽고리즘 아동의 언니는 정신적 장애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Skrtic(1984)등은 형제자매는 동일시 과정을 통해 서로서로 돕는 강한 힘을 갖고 있으나 정상형제 자매는 장애 형제자매의 특성에 대한 동일시로 인해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매들의 좌절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또 응답자의 대부분이 사춘기 청소년이기 때문에 주위

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3) 친구와 관련된 좌절감

문항 1은 정신지체아로 인해 동일시와 사회적 고립감의 되는 경우를 상상하는 좌절항목이고, 문항 2는 형제간의 응집력과 정신지체아로 인한 피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를 상상하는 좌절 문항이다.

본 연구의 결과 문항1에서는 성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D점수가 높았고, 유의한 차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자매들이 친구와 관련된 좌절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Hall(1988)의 연구결과에서 친구와 관련된 좌절자극에서(문항1, 2)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한것은 표집대상자의 차에 기인한것으로 사료된다.

Bank와 Kahn(1975)는 형제자매들은 서로 의지하고 보호하여, 외부인에 의해 공격을 당했을때 결함력있는 방어집단을 형성한다고 하나 본연구의 성적에서(문항2)제 특성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문항1에 비해 문항2의 D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응집력에 있어서나 도피성에 관한 좌절감이 높은것을 나타낸다.

종교와의 관계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신자는 불신자보다 문항1에 대한 좌절감이 높고, 유의한 차를 나타낸 것은 동일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 한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좌절감을 높인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지금까지 고찰을 통한 논의를 요약하면 가정내에 정신지체아가 있을때 동일화와 분리, 의존적 욕구의 상실, 피해감과 과중한 역할부담, 부모의 무관심 등은 정상형제자매들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욕구가 수용되지 않을때 좌절감이 생긴다 하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임상의가 염려할 정도의 수준으로 좌절감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신지체아의 정상 형제자매들이 좌절자극에 대해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정신지체아와 함께 지내는 생활은 정상 형제자매의 인성발달에 심오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장애아나 만성질환아를 가진 가족을 보살피고 치료하기 위한 가족중심접근은 형제자매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의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양육에 힘쓰고 자녀들이 잠재된 문제까지 인식함에 있어 심리학자나 임상의 전문인의 상담적 접근을 통하여 장애아를 포함한 진단적 가족면담이 이루어짐으로서 예방적,교육적, 치료적 계획이 취해져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다.

VI. 요약 및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정신지체아동과 함께 기거하는 정신지체아의 정상 형제자매 130명을 대상으로 어의구별척도에 의해 자아개념과 좌절감을 조사하였다.

정신지체아의 정상 형제자매의 자아개념과 좌절감이 형제자매의 제변인과 어떤 관계로 나타나는가를 Anova와 Pearson의 상관에 의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정신지체아의 정상형제자매의 자아개념은 성별 간에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이는 남자형제보다 여자자매에게서 자아개념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자아개념과 좌절감간에는 상관이 없었다.

셋째 부모와 관련된 좌절감은 대상아동의 성별, 나이, 출생순위, 종교, 정신지체의 지체정도와는 유의한 차를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형제자매와 관련된 좌절감은 형제의 성별에서 일부 문항이 유의한 차를 보였다.

다섯째 친구와 관련된 좌절감은 성별과 종교가 일부 문항에서 유의한 차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형제의 성은 자아개념과 좌절감이 중요한 변인이며 특히 형제보다 자매들의 좌절감이 높았다. 이는 가정에서 여자들이 가사일에 대한 책임과 역할의 할당이 많아 역할긴장이 높은것에 기인한것으로 사료되며 가정환경이 자아개념과 좌절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부모가 자녀교육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언

1. 형제자매의 자아개념이 정신지체아와 다른 장애아동의 장애종류에 따라 다르게 영향받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2. 형제자매들의 자아개념이 역할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 어떻게 영향받는지에 관한 후속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3. 부모의 교육관의 차이에 따라 좌절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후속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김정권(1981). 정신박약아 특성, 이태영, 김정권(공

- 편), 정신박약아 교육. 서울 : 형설출판사, 73-91.
 김정울(1990). 심리학개론. 서울 : 학문사, 221.
 김정휘 역(1987). 정신지체아 교육의 원리와 실제. 서울 : 교육과학사.
 신순기의 2인(1974). 대학생의 성취동기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학생생활연구소, 제5권, 1974.
 이상춘(1981). 정신박약아 교육. 이태영, 김정권(공편). 특수교육학, 정신박약아 교육총서 II. 서울 : 형설출판사, 245-261.
 송인섭(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 양서원.
 전병재(1972). 자아개념 이론에 관한 고찰. 인문과학, 연세대 인문연구소, 106-107.
 정은순(1992). 정신지체아 정상형제자매의 자아존중감과 부모태도에 대한 지각, 대구대학교 대학원 (미발표).
 최상진 및 최국영역(1989). 인간의 사회적 발달, 서울 : 성원사, 1989. D. G. Perry & K. Bussey, Soci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최춘호(1981). 신체장애 취학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어머니 양육태도와의 상관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Adams, M. E. (1967). Siblings of the retarded : Their Problems and Treatment, Child Welfare, 46, 310-334.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 Henry Holt, 127.
 Bank, S., Kahn, M. (1975). Sisterhood-Brotherhood is Powerful : Sibling Subsystems and Family Therapy. Family Process, 14(3), 311-337.
 Blake, K. A. (1976). The Mentally Retarded and Educational Psychology. New Jerse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Bowen, M. (1978). Family Theory in Clinical Practice : Theoretical Concepts. New York : Jason Aronson Inc., 423-459.
 Breslau, N., Weitzman, M., & Messenger, K. 1981. "Psychologic Functioning of Siblings of Disabled Children", Pediatrics, Vol. 16 No. 3. 344-353.
 Burton, L. (1975). The Family Life of Sick Children : A Study of Families Coping with Chronic Childhood Disease. London : Routledge & Kegan.

- Caldwell, B. M., Guze, S. B. (1960). A Study of the adjustment of Parents and Siblings of Institutionalized and Non-Institutionalized Retard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64, 845-861.
- Cleveland, D.W., Miller, N.(1977). Attitudes and Life Commitments of Older Siblings of Mentally Retarded Adults : An Exploratory Study, Mental Retardation, 15, 38-46.
- Colletti, G., Harris, S. L. (1977). Behavior Modification in the Home : Siblings as Behavior Modifiers, Parents as Observ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5(1), 21-30.
- Dollard, J., Doob, L., Miller, N. E., Mowerer, O. H., Sears, R. R.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Farber, B., Jenne, W. C., Toigo, R.(1960). Family Crisis and The Decision to Institutionalize The Retarded Child. Institute for Research on Exceptional Children and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Illinois.
- Farber, B.(1970). Effect of a Severly Mentally Retarded Child on Family Integr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Y., Krawa Reprint Co., 24(2).
- Farber, B., Ryckman, D.B.(1965). Effect of Severely Mentally Retarded Childeren on Family Relationships, Mental Retardation, 2, 1-17.
- Fowle, C.M.(1968). The Effect of the Severly Mentally Retarded Child on His Family,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73, 468-473.
- Fotheringham, J. B., Creal, D. (1974). Handicapped Children and Handicapped Families,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20, 355-373.
- Friedman, M. N. (1981). The Systems Approach to Family Analysis : Introduction I concepts and approaches, Family Nursing: Theory and Assessment. New York : Appleton-Century-Crefts, 72-82.
- Gardner, P., Oei, T. P. (1981). Depression and Self-Esteem : An Investigation that Used Behavioral and Cognitive Approaches to the Treatment of Clinically Depressed Clients, J. of Clinical Psychology, 37(1), 128-135.
- Gath, A. (1974). Sibling reactions to Mental Handicap : A Comparison of the Brothers and Sisters of Mongol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Psychiatry, 15, 187-198.
- Gath, A. (1972). The Mental Health of Siblings of Congenitally Abnormal Children, J. Child Psycholgy. Psychiatry, 13, 211-218.
- Graliker, B. V., Fishler, K., Koch, R. (1962). TeenAge Reaction to a Mentally Retarded Sibling,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66, 833-843.
- Grossman F.(1972). Brothers and sisters of retarded children : An exploratory study. Syracuse University Press New York.
- Hall, A. B. (1988). Siblings of Handicapped Children. A Study of Self Concept, Frustration and Attitudes, Doctoral dissertation Northeastern Univ.
- McCrae, R. R., Costa P. T. (1982). Self-Concept and the Stability of Personality : Cross-Sectional Comparisions of Self-Reports and Rating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6), 1282-1292.
- McKeever, P. (1983). Siblings of Chronically Ill Children : A Literature Review with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3(2), 209-218.
- Miller, S. (1974). Exploratory Study of Sibling Relationships with Retarded Children, Englewood Cliffs. N · J : Prentice Hall. In C.
- Reinert, H. R. (1976). Child in Conflict, Mosby Co.
- Reynolds, M. C., Birch, J. W. (1977).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in all American School-A First Course of Teachers and Principals,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Drive. Reston Virginia.
- Rogers, C. (1959).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Centered Framework, In S. Koch

- (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New York : McGraw-Hill, 184-256.
- Seligman, M. (1983). Sources of Psychological Disturbance Among Siblings of Handicapped Children,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1, 529-531.
- Skrtic, T. M., Summers, J. A., Brotherson, M. J., Turnbull, A. D. (1984). Severely Handicapped Children and Their Brothers and Sisters, In J. Blacher (Ed.), Severely Handicapped You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cademic Press Inc., 215-246.
- Stoneman, Z., Brody, G. H., Davis, C. H., Crapps, J. M. (1987). Mentally Retarded Children and Their Older Same-Sex Siblings : Naturalistic in-Home Observations , Ameri. J. of Mental Retard, 92(3), 290-298.
- Thomas, J., B. (1973). Self-Concept in Psychology and Education. New York : N. F. E. R. Co., 7.
- Trevino, F. (1979). Siblings of Handicapped Children : Identifying Those at Risk : Social Case work,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60, 488-493.
- Tritt, S. G., & Esses, L. M. (1988). Psychosocial adaptation of sibling of children with chronic medical illnesses. American Orthopsychiatric Association Inc., 211-219.
- Wilson, J. Blacher, J., Baker, B. L. (1989). Siblings of Children with Severe Handicaps, Mental Retardation, 27(3), 167-173.

- ABSTRACT -

A Study on Self-concept and Frustration of Siblings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Chung, Eun-soon**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psychological impact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on their normal siblings in the famil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iblings of 130 mentally retarded children using a questionnaire with a semantic differential scale. ANOVA and simple correlation coefficient tests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blings'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frustration.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ing.

1. Female siblings showed a lower degree of self-concept than male siblings.
2.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self-concept and frustration stimuli.
3. Parent related frustration stimuli was no significantly different in sex, age, siblings, religion, and retardation level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4. Siblings related frustration stimuli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only one item in sex.
5. Their peers related frustration stimuli while sex as well as relig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only one item.

*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